

한국사의 디아스포라

⑤

일본 한인 디아스포라

1차시. 제국일본과 재일 한인의 형성

2차시. 식민지 조선인의 일본도항과 재일 한인의
형성

3차시. 해방 이후 재일 한인 사회의 형성

4차시. 재일 한인 조직과 민족교육

5차시. 재일 한인 차별과 헤이트스피치

6차시. 재일 한인의 현재와 디아스포라



05

06. 재일 한인의 현재와 디아스포라

학습 목표

- 재일 한인의 과거와 현재를 정리해보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 조선. 하지만 재일 한인 중 누군가는 여전히 조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무국적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왜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고 있을까? 누군가는 하나의 조국을 지지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일본국적의 일본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재일 한인은 역사의 산물이자 한 줄로 정의할 수 없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다.

2. 요약정리

1) 1910년 일제강점기 이후 일제의 강제징용, 농민층의 몰락, 세계적 정세와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조선인이 일본으로 이주한다. 일제강점기 동안 매년 조선인 이주자가 증가했으며 해방 직전인 1944년에는 약 20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거주했다. 1945년 해방 이후 약 6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남아 재일 한인 사회의 원형을 구축한다.

2) 재일 한인들은 이국 땅 일본에서 민족성 유지를 위해 각종 조직을 결성하고 재일 한인만의 민족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민족성을 유지한다. 1945년 10월 <재일본조선인연맹>의 결성을 시작으로 <일본대한민국민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등 다양한 조직이 결성된다. 이들 조직은 해방 7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재일 한인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족성을 지키고 생활권을 형성하여 현재 삶의 모습을 형성했다.

3) 재일 한인들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재일 한인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인권운동과 소송을 제기하며 권리를 획득했다. 고마쓰가와 사건, 김희로 사건, 히타치투쟁은 차별에 맞서는 재일 한인의 치열한 투쟁의 역사이자 스스로의 권리를 획득하는 행동이었다.

4) 1970년대 이후 재일 한인 사회에서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서도 재일 한인으로 살아가는 '제3의 길' 가치관이 확산된다. 젊은 세대는 스스로를 코리안 재패니즈(Korean-Japanese)라고 지칭하며 국가와 국적에 귀속되지 않는 한층 유연한 탈국가적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재일 한인의 역사와 현재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디아스포라의 삶의 궤적과 글로벌시대 공존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